

□ 용인캠퍼스 17대 총학생회 선거 정경도론회 내용 정리

근시안적 시각 벗어난 왕산발전

구체적 계획·실행가능성, 헛점 노출 총학평가·학부제 대응방안 등 이견

추운 날씨에도 시종인간 지지해결 전쟁
 된 이번 정경도론회에서 양측 후보는 16
 대 총학생회 평가, 학부제에 대한 대응방
 안, 용인운동권, 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해
 현저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학생
 복지사안들의 문제는 대부분 비슷한 정책
 을 제시했고,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입장을 펼쳤다.

이번 17대 총학생회 후보자들은 지난해
 복지공약에만 머물러 근시안적 시각에서
 왕산발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재
 정확보방안, 교육내용, 학생의 학사생활
 참여방안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책방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미흡함을 드러
 냈다.

자재한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16대 총학에 대한 평가는
 -기호변(1) 정: 교과과정 개편등의 사
 업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했다.
 그러나 학부제에 대한 여론형성이 미흡했
 다. 단위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점도 있다.
 -기호변(2) 정: 지과, 단대, 총학까지
 통일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학생들
 의 자부심 함양에 이르지 못한 듯한 단단
 적 운영이 원인이었다.
 -기호변(3) 정: 총학의 운영에 대한
 한 구체적 실현방안은
 =(1) 부: 의대실업은 당장은 불가능하
 다. 그러나 현의 설립은 가능성 충분하
 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이며 구체
 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대학국의 학부제 도입 발표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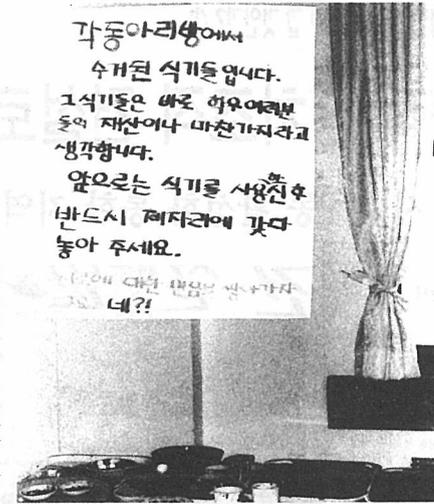
대응방안은
 =(1) 정: 전면적 철회재제는 불가능하
 다. 학생들에 대한 여론과를 통한 논의구
 조 마련이 시급하다. 여론의 불만감 보다는
 과발로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2) 정: 한일련 학부제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그리고 나
 홀대과 과도기적 운영방안을 대안으로 주
 정했다. 과도기적 운영방안대로라면 현
 모집요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 기호변 공약중 외국어연구센터등 7
 개 건물실업이 명시됐는데 이에 대한 재
 원확보 방안은
 =(2) 부: 학교 당국과 재단의 적극적
 투자를 위한 분담은 어렵겠지만, 학생들
 의 힘을 모아나가는 중점을 해낼 수 있다
 고 확신했다.

△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
 =(1) 정: 문제점은 경영상태가 없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좋아지면
 경영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2) 정: 대학의 주인은 3주체이다. 학
 생들이 학교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이후 생활 학생위원회의 위상
 을 높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
 다.

△ 기호 1번 공약중 부전공 회화수업
 수강인원 30명 이하 제한에 대해 구체적
 으 설명하였다
 =(1) 부: 부전공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약하였다. 부전공회화 수업 편이
 나다 모든 과목이 30명이하로 제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수강신청시 학생들
 에게 계몽운동도 필요하다.

△ 여성의 지위와 성차별에 대한 후보
 들의 의견은
 =(1) 정: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못했다. 여성차별문제는 남·녀가
 동등하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2) 정: 여성문제가 자유연애나 성행
 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 우
 리나라의 많은 모순 중 하나인 여성문제
 는 사회모순해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외국된 성문화와 척결운동을 벌일 생각이다.
 △ 등구어대 단대리리 공약에 대한 구
 체적 실현방안은
 =(2) 정: 단대리리는 꼭 이뤄내야 할
 사안이다. 우선 등구어대 5개과의 계열기
 초과목 신설을 이뤄낼 생각이다.
 △ 후보자들의 통일관은
 △ 후보: 과격하고 학부중심적 통일운
 동 반대한다. 교류를 통해 정국민이 함께
 하는 통일운동이 돼야 한다. 정부의 한민
 족공동체 방안은 자제히 알아두거나 시기
 적일 것 같다.
 =(2) 부: 7월만 거리가 참여하는 통일
 이 돼야 한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일민족 일국가 연방제 방식이 옳다고 생
 각한다.
 △ 취업추진장 이론·왕산 근 등반본
 에 대한 기호 1번 후보의 구체적 실현방안은
 =(1) 정: 독자적 홍보체제를 구축할 생
 각이다. 공약에 기재된 3가지 홍보방안은
 모두 연계돼 있다.
 △ 신설노선 확대면으로는 통학시간 단

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
 응책은?
 =(1) 부: 신설노선으로 지리서비스 대
 의 운영이 중단됐다. 여러가지 주변여건
 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500원 증
 차, 1005 1번 노선연장, 막차시간 연장 등
 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2) 부: 학교가 교통문제에 대해 책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노선서비스 증차도 중
 요하지만 학교버스 증차도 가장 중요하
 다. 교통소위원회를 건설해 구체적 방안
 고리하겠다.
 △ 재정확보를 위해 재단을 어떻게 강
 제할 계획인가
 =(1) 부: 예결산 공개 등은 외대발전
 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왕산 연대로 지속적인 투명 통해 조
 급해 해결해 나가겠다.
 =(2) 부: 재단소유 무동산이 그린벨트
 로 묶여있다. 재단운영상의 문제점 지적
 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학
 생들과 함께 한다면 꼭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학생회 운영의 중시방안은
 =(1) 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끌기 보
 다는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다들만 나는 왕산건설은 복지중
 점 해결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 외대중중
 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
 =(2) 부: 생활·학부·투쟁의 모든 사
 업영역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기조다.
 서로를 받고 의의까지 살 수 있는 공동체
 건설에 중점을 둘 것이다.



식기의 귀향
 용인캠퍼스 생활협동
 조합은 각 과반이나
 동아리방에서 파페트
 나 재질인 등으로 쓰
 이고 있는 식기들을
 수거해 학생들의 각
 성을 요구하는 대자
 보와 함께 학생회관
 식당에 집결해 놓았다.
 아직 많은 식기
 들이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훼손
 된 식기의 모습에 학
 생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정영익 기자

□ 열린총학실(11/15)

“복수전공 4년안에 끝낼 수도 있다”

스칸디나비아어 10여명의 학생들과 여학생회
 원회가 참석한 열린총학실은 △교과목 중심 △
 여학생위원회 지원 △분관 분 담는 시간 변경
 에 대해 논의했다.

양용혜(서양·스칸디나비아어 2)은 “한정된
 교과목이 내용까지 단순화되면 전달하는 것
 과 수업의 연장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대책을 강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명만 총장은 “99년부터는 폭넓은
 교양과목을 개설할 것이며 4년안에 복수전공까지
 가능한 계획을 구상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여학생위원회위원장(여위) 김나을(서양·
 법 4)은 현재 총학생회 상하기구로 있는 여위

에 대해 “외대 여학생을 위한 유일한 기구로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며 대학당국이 재정적 지원
 을 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용혜
 “여위는 학생회와 협의하라”고 답변했다.

분관 분 담는 시간을 제기한 김신민(서양·스칸
 디나비아어 2)은 “본관 일문을 7시 정도에 닫는
 데 본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양용혜는 이 사
 안에 대해 “관계부처 직원에게 해결방안을 강구하
 도록 지시했다”라고 대답했다.
 이밖에도 스칸디나비아어과 과장 변경문제 △
 컴퓨터 교양과 등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학생들은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학부제 실시에 반발하며
 지난 6일(월)부터 15일(수)까지 9일동안 총
 장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학생
 회장을 만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왔다.
 -경희대 학부제 도입 상황은
 = 무역·경영·회계학과를 통한 경영학

□ 학부제 실시에 반발한 경희대 무역학과 학생회장 김성익(3)을(3)을 만나

“학생 참여보장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부제가 내년에 시행될시에도 99년도에는 전
 계열에 걸쳐 학부제가 도입된다.
 학부제 실시에 대한 무역학과 입장은
 = 전면적인 거부는 하지 않는다. 다만 학
 교측의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을 반대한다.
 침묵시위를 전개한 배경은
 = 과학생의 차이를 학교측에 공문도 피
 우고 침묵시위로 진행했지만 일방적인 대학
 당국의 학부제 도입이 교육부에 통과돼 학년
 투표 실시로 농성을 결의하게 됐다.
 - 침묵농성 이후 대학당국의 태도는
 = 99년도 학부제 시행시 방침은 그대로
 시행하며 무역학과와 장기간 발전전망을 강
 구해 주기로 했다.
 학부제 실시에 대한 경희대의 입장은
 오은진 기자

=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만 대학당국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반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 지난 9일(목) 외대 공청회를 참관한절로
 아는데
 = 외대도 우리의 마찬가지로 대학의
 입장이 일방적 결정이 된 점과 학생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등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다만
 학생들이 학부제 시행에 대한 뚜렷한 의사가
 없었던 점이 실망스러웠다.
 - 이후 학부제 도입에 대한 대안책은
 = 대학당국의 일방적 결정은 이를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 이후
 무역학과 특성을 살린 발전방안을 지속적
 으로 제기할 것이다.

□ 경찰에 자진출두한 98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철준군을 만나

“선배가 못다한 일 꼭 이뤘으면 한다”

“우리는 그를 너무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
 지요”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지난 16일(목)
 서울캠퍼스 대자보관에 붙여 있었다. 98년도
 27대 총학생회장 이철준(서양·영어 4)은 이
 2년 반의 수배생활을 정리하고 이날 5시 청
 량리 경찰서에 자진출두하게 된 것에 관한
 대자보였다.
 98년 당시 재단의 퇴직을 요구하며 교육부
 항의방문 등 반재단 투쟁을 벌였던 이철준은
 해 9월 총학생회 출범식 주도 혐의로 수배되
 고, 98년 2학기 총학생회 전국시 단위로 예
 된 공간에 영장을 거부 ‘문도파자라는 별명
 에까지 이르는 채 도피생활을 계속해 왔다.
 정경도론회에서 3명이 30분간 그를 만나
 자진출두할 배경과 현재의 심정을 알아냈다.
 수배를 받은 이유는

= 경찰이 내세우는 이유는 한총련 출범식
 주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동부지역총학생회
 합 의정도 수배받지 않은 상황에서 외대에서
 5명의 간부가 수배받지 않은 상황에서 외대에서
 일어난 일이며, 98년도 1학기 당시 재단의 퇴직을 요
 구하며 반재단투쟁을 이끌었던 것과 관련된
 것 같다.
 - 지금 심정은 어떻게
 = 주위의 우려에도 오히려 편안하다.
 - 자진해서 경찰에 나가기 된 배경은
 = 이젠 정리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야
 했다는 생각에 한일련부터 주위 사람들과 논
 해 왔다.
 - 수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 보고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가
 장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98년도 반재단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켜준 것이다. 재단의 학교 발전에 반하는 행위는
 는 타이산 있어서도 안되며 이후 외대발전
 을 위해 선배가 못다한 일을 꼭 이뤘으면 한다.
 이곳은 이철준 구수됐고, 총학생회는 오는
 21일(금) 외대도서관에서 이론 변로 비공 미련을
 위한 일일토크를 열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세계로 미래로 -

정보통신
 중앙SHL
 오리온카네트워킹

금융
 중앙증권
 중앙투자금융
 중앙생명보험
 중앙카드
 중앙알부금
 중앙창업투자
 중앙투자자문
 중앙신용
 중앙피어뱅크

무역·유통
 중앙글로벌
 중앙애오
 중앙미르

제조
 중앙시멘트 중앙매직
 중앙산업기계 중앙토빌

식품
 중앙제과
 오리온푸드프레시

공익
 서남재단

국가기간산업에서 금융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국가기간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온
 동양그룹이 식품, 금융, 유통서비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뛰어갑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해 온 동양그룹 -
 이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와
 앞선 세계화의 실현을 통해
 21세기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동양그룹

◆ 달라진 정치지형, 어디로 갈 것인가? (1)

대중적 정치조직 건설로의 발전적 전환

시민운동 활성화 통한 지역 기반 마련 시급

글쓴이 순서

1. 달라진 시대정세
2. 한국 정치체제 개편의 전망
3. 정치조직의 대안

지난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또한 5·18, 비자금 등 각종 사안을 두고 보수파와 개혁적 성향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다. 갖가지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민족민주운동전열 역시 주·객관적 요구에 의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세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달라진 정치지형의 분석과 함께 새 희망을 찾아 보고자 한다. 편집자

한국사회는 현재 대의의로는 냉전구도의 해체를 계기로 한국사회를 근면에서 규정받은 냉전적(이념적) 대치를 기본으로 한 정치군사적 대치 분단정치를 형성케 한 주요한 대립대상이었던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이 대두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민대중의 30여년에 걸친 민주화 투쟁을 배경으로 냉전적 분단정치를 보장하는 국내적 토대였던 분단분쟁정치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공존과 경쟁질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듯 오늘날의 정형으로 우리 사회에도 아직은 불안정하고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가 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볼 때 현재의 정세는 총괄적으로 기존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반대를 기초로 한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에서 한 차원 전진된 보다 민주적인 정치질서로 발전을 시작한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최근 정치권 전반에 보수경쟁구도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 반민주단면민주연합으로 단선화될 수 없는 유동적인 정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단면상황은 현 정세의 이러한 과도기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보수경쟁구도는 97년 권력교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전미민주간 보수체제의 수립을 앞두고 민간보수전열 간, 그리고 보수세력 간에 차기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이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주과 지배세력이 의도하고 있는 전미간민주체제의 성격을 보면 과도기의 정세를 규정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는 근로대중의 진출과 냉전적 분단정치의 해체정황이 강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국면을 감안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민주운동전열은 민주화 출발의 주관적 이유와 시민운동 성장과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부터 새로운 첫발을 내딛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민족민주운동은 이중적 과제를 부여받는다. 하나는 보수세력의 정치지배를 제어하고 사회의 변화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재정권의 잔재정산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을 확대, 강화하는 것 이외 다른 하나는 근로대중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이루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적 발전대세를 이념적, 계급적, 대중적, 정치적 측면에서 확립해내면서 국민적인 정치세력으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지금까지의 대중운동의 성장 배경으로 하는 우리 사회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적 민족민주운동의 목표는 곧 이념적 지향과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자기 과제를 충실히 하면서 기독교세력의 보수화 경향을 막고 사회 내의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한 준비와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각계 대중의 진보적 요구를 모아 대중적 기초에 선 정치조직을 건설하여 단순한 '회합' 차원이 아니라 현 사회운동의 정상적인 발전단계에 당당한 정치이자 목표로 제기되고 있는 제도권 및 의회공간에 진출하는 것을 포함한 민족민주운동의 전반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룩하는 일이다. 이러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우선 지역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정치세력화의 기본 단위를 지역을 확고한 정치적 진지로 전환시키고 근로대중의 진출을 민족민주운동의 기본적인 발전동력으로서 위치지우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중적·정치적 기초를 확대·강화하는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한편 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을 추동하고 대표해 왔던 전선운동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 이르기까지 각계 대중운동의 성장을 견인해내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즉 민족민주전선운동은 선진역량 중심의 공개기구운동 수준에서 기본 대중조직이 중심이 되는 대중적인 전선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기본대중이 전선운동의 주체이자 토대로 성장·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전국연합으로까지 발전해 온 전선운동은 두가지 점에서 일정한 발전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우선 대중운동의 성장에 전 국민적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연합이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운동 수준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한계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요인은 대중운동의 성장에 조율하는 운동력의 재편성(고도화)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노동부문을 대표하여 전국연합을 구성하고 있었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민주노동운동출발위원회 전선연합을 가장 중요한 운동의 주역인 노동부문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전연맹으로부터 대표되는 기존의 전선운동 외부에서 다중단면적인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전선운동 내부의 대중단체를 역시 초기 출발시의 모습과 달리 자체적인 안정화와 소속대중의 조합적 이해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전선운동 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전선조직 재편이후가 단기적으로 일정한 후퇴로 보여질 수도 있겠

으나 전체적으로는 운동의 후퇴가 아닌 운동의 발전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동이 대의원대회에 상정한 강령초안에서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과 민주노동 출범이 가진 민족민주운동의 계급적·대중적 토대의 강화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간의 전선운동의 기본적 지향인 자주·민주·통일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당면해서 제기될 전선운동의 확대발전 방향은 주로 민주노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 전국연합의 성과와 가치를 계승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다중단면적인 시민운동을 민주와 통일을 위한 광범위한 정치조직으로 모아낼 수 있는 포괄적인 연대체일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서 언급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족민주정치조직의 건설과 함께 진행됨으로써 전반적인 민족민주운동의 역량 관성을 보다 고도화하는 전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현재 전국연합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재편 논의는 이성과 같이 민족민주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정세와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정세의 변화에 따른 활동방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의 운동역량이 발전하는 조건에서 현재의 조직들이 이 운동력의 상승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체적인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조직화와 전선운동의 대중적인 확대, 재편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주객관적 정세는 국민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성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도 총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부분적이고 경험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재단하거나 대과결이 보다 선전되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 사회가 맞이한 주체적, 객관적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자세야말로 현재 제기되는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이 우리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다시금 비판적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적 권위를 회복하고 21세기 자주와 통일, 민주를 시대를 선도해가는 단서가 될 것이다.

김 현 배
(전국연합 정책실 차장)

외국 전보정당의 사례 ① -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성장과 성향

노동자 권익 대변한 빼빼당

1979년 창당된 브라질 노동자당(P.T : Partido dos Trabalhadores)은 세계 각국의 비숙한 움직임을 볼 때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라질 내부의 사회현실과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고, 창당 10년만에 제 10당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당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신노조운동의 대두와 노동자당 창당

노동자당 태동 시기의 브라질은 군사정부의 통합 노동법에 의해 수립된 국가통제조합주의 노동조합의 운동과 성장이 억압받고 있었다. 이 노동법에 의해 국가가 인정하는 노조만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브라질 노동성은 노조 지도자를 해임하고 노조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로 노조 재정을 충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 탄압 속에서, 군부 독재정부는 경제성장을 제 1목표로 삼고 있었다. 대규모 국영기업과 외국 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었고, 새로운 수입대체 산업화 시기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말까지 브라질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 속에서 부의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상위 5%의 인구가 얻은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의 27.7%에서 39%로 급증하였다. 반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발전은 노동자 계급의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나 공장으로 몰리면서, 노동자들은 엄청난 열정을 이룰 수 있고, '신노조운동'이 대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신노조운동'은 1977년 '일급화복운동'이 발단이 되었다. 정부의 통제수치의 조장으로 노동자 실제임금은 25%나 하락했던 것이다. 이 투쟁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노조를 주장하게 되었고, 파업을 통한 노조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속에서 불타는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더 조직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의 정쟁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브라질 노동자당이 결성되게 된 것이다.

브라질 노동자당의 성장과 선거

1979년 노동자당을 결성하고 1980년 정식 출범한 이래 다섯 차례의 큰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런 선거에 영향을 받아 노동의 노선이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노동자당은 선거를 통해 제 1야당으로 성장해 나갔다. 1985년 선거에서는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주주도 시장경제에서 노동자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노동자당에게는 커다란 성과였고, 보수진영에게는 커다란 위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당은 행정경험의 미숙으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1989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1천%를 웃돌았으며 노동자 임금의 실제성장률은 -25%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부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당에게 호기로 작용하였고, 1988년 총선에서 노동자당은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다음 해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다. 소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던 브라질 자본주의 체제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이룩할 확실한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 노동자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노동자당은 플라를 후보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좌익의 지지를 받았지만 도시 부유층을 농민계급의 표를 상당수 얻지 못해 3%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것이다.

1994년 당시에도 브라질의 경제는 심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좌파의 성향을 띤 제후정권 카르도수를 '해방 계획'이라는 경제계획을 내놓았다. 처음 브라질 국민이 이 계획을 대하는 시선은 밝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선거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상당한 가치적 성과를 나타내었다. 연 1천%를 웃돌던 인플레이션도 어느정도 가라앉았고, 경제도 안정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카르도수에는 중도좌파와 우익을 연합하여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고, 선거직권까지 여론조사에서 카르도수를 앞서는 다시금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지만 나름대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해 왔다. 지금 대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도 안고 있다. 이 시점에서 노동자당은 어떻게 앞으로의 전로를 모색할 것이며, 플라가 은퇴한 지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지켜볼 만한 일이다.

변 중 준
(서양·포르투갈기 2)

비밀로 함께 하는 자연의 재발견 ④ - 칠원 현관

도원세션의 고향
칠원현관

넓은 들판을 거침없이 휘감아돌던 푸른 물줄기로 내 곁에 서리라, 한탄강이여!

칠원마을을 감싸다 임진강과 만나는 은하수처럼 넓고 긴 물줄기, 한탄강. 지금은 한반도의 상처와 아픔으로만 기억되는 곳. 그러나 수만년 전, 삶의 터전을 일구던 옛사람의 기상이 세월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곳 - 쫓겨난 물줄기 한가운데에 자리한 고석정. '슬픈 역사는 가슴 깊이 묻고 침묵하라. 그저 천년만년 반짝이는 동경으로 오가는 이의 발걸음은 물이후라'고 가슴으로 노래한 뿐이다. 거친 땅의 모진 삶을 일구어내며 새 길 여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강과 사람이 한뜻으로 위저서 우리가 가꾸어야 할 새생을 넉넉한 품으로 감싸안으라고 가르치던 마스한 손길, 한탄강이여.

자연에 향한 절정의 발걸음 - 비파포가 함께 합니다.

outdoor shoes
Buffalo

서울, 각 단대 학생회장 선거 돌입 용인 과회장 선거 40% 완료

선거가 준비로 치닫고 있는 서울에서 각 단대 입학부자가 학생회장 선거를 치러가고 있다. 서울캠퍼스 6개 단대 학생회장 선거는 모두 단독출마로서 찬반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짓게 된다.

지난 14일(화)·15일(수) 양일에 걸쳐 선거를 치른 사범대 학생회장선거는 이원복(영교 2)군이 2백88표이 투표해 찬성 2백61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는 지난 16일(목) 선거를 통해 김철규(사

지)영어 3)군이 각각 정·부학 생활장 후보로 입후보해 오는 23일(목) 선거를 치러며 동아리연합회는 21일(화) 선거를 치른다.

정확과하라는 윤상호(신방 3), 상경대는 김창수(무역 3), 법과대는 황인복(영교 3)군이 입후보해 오는 22일, 23일 양일에 걸쳐 선거를 치른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는 지난 16일(목) 선거를 통해 김철규(사

용인 캠퍼스 선거현황

학과	투표일	입후보자 및 당선자	학과	투표일	입후보자 및 당선자
이태리어	15일	김창성(2) *	산언공과	20일	
인도어	16-17일	정원현(2) *	전자공학	21일	안충성(2)
아프리카어	16-17일	이종선(2) *	재어계측	23일	
경영정보	14-15일	박성진(2) *	회화과	20일	
무역	15-16일	임정민(2) *	정보통신	23일	
경제학	11일	김성호(2) *			

서울 캠퍼스 선거현황

학과	투표일	입후보자 및 당선자	학과	투표일	입후보자 및 당선자
독어	30일	최은영(2)	마어	15일	정종우(3) *
스칸디나비아어	22일	신원찬(4)	태국어	13일	박정민(4) *
중국어	16일	이현철(2) *	어어	21일	남종민(2)
신방	16일	조태현(2) *	베트남어	16일	김윤중(2) *
포르투갈어	16일	차재훈(2) *	한교과	15일	이수영(2) *
서반어	22일	양영우(2), 최재지(1)	영교과	15일	이영원(4), 박현규(1) *

*는 당선자.

통역대학원 최종합격자 발표돼 본교생 4개과 수석합격 영예

96학년도 통역대학원 최종합격자가 지난 17일(금)에 발표됐다. 본교 출신으로 △한영과; 김지현(서양·영어, 95년 풀) △한과; 김준우(서양·러시아어 4) △한중과; 장영주(동양·중국어 4) △한과; 이지영(동양·아랍어 4) 등 4명의 수석합격자가 나왔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중 본교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영과 6%, 한중과 40%, 한서과 71%, 한독과 12.5%, 한러과 85.8%, 한일과 30%, 한공과 37.5%, 한아과 75% 등으로 나타났다.



사후의 가르침

프로투기어과 강사로 재직중이던 박성운씨가 지난 10월 11일(수)에 지병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가족들은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공 및 관련 서적 3백10권을 학교에 기증했다. 이 서적은 지난 17일(금) 학과강실에서 학생들이 감사패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모습이였다.

대학단신

용인

교과대학원, 싸이코드마크 공인

본교 교육대학원은 '내측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주제로 오는 21일(화) 오후 5시 30분 용인대학교 교양관 201호에서 싸이코드마크를 공인한다. 추후공인형식으로 구성해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본교생, 환경논문 금상 수상

제1회 전국 환경보도 생활수기 논문전에서 본교 이기원(법) 법과 2)군은 논문부문에 금상을 차지했다. 한국환경교육협회 주최로 열린 본대회는 논문·생활수기·교사교육수기 세부분문에 3천 8백여명의 참가했다.

유고어과, 송년의 밤 개최

교수와 학생을 하나로 모을 유고어과 송년의 밤이 오는 25일(토) 상수동 체육관에서 열린다. 유고어과의 1년 사업을 통틀어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성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밤이다. 유고어과 101명이 보고하고 졸업생 환영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배낭여행 및 어학연수 박람회 열려

배낭여행과 어학연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배낭여행 및 어학연수 박람회'가 서울지역 학생(원)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7일(금) 본관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영어회화반,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영어 말하기 대회(ENGLISH SPEECH CONTEST)가 영어회화반(VEC) 주최로 15일(수) 출정식 가운데 지난 17일(금)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공고

1996년도 제1학기 교양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 수합에 대해 공지합니다. -아 레- 1.신청기간: 1995. 11. 27(월) ~ 1995. 12. 15(수) 2.신청처: 학생처 3.신청자격: 1995. 6. 1 ~ 1995. 12. 1 기준 중학교 3학년 이상인 학생 4.신청서류: 1.자기소개서 2.영어회화반 성적서 3.영어회화반 성적서 4.영어회화반 성적서 5.영어회화반 성적서 6.영어회화반 성적서 7.영어회화반 성적서 8.영어회화반 성적서 9.영어회화반 성적서 10.영어회화반 성적서 11.영어회화반 성적서 12.영어회화반 성적서 13.영어회화반 성적서 14.영어회화반 성적서 15.영어회화반 성적서 16.영어회화반 성적서 17.영어회화반 성적서 18.영어회화반 성적서 19.영어회화반 성적서 20.영어회화반 성적서 21.영어회화반 성적서 22.영어회화반 성적서 23.영어회화반 성적서 24.영어회화반 성적서 25.영어회화반 성적서 26.영어회화반 성적서 27.영어회화반 성적서 28.영어회화반 성적서 29.영어회화반 성적서 30.영어회화반 성적서 31.영어회화반 성적서 32.영어회화반 성적서 33.영어회화반 성적서 34.영어회화반 성적서 35.영어회화반 성적서 36.영어회화반 성적서 37.영어회화반 성적서 38.영어회화반 성적서 39.영어회화반 성적서 40.영어회화반 성적서 41.영어회

□ 영화평 - '주홍글씨'

헐리웃 영화의 원칙 위한 원작 '포기'

원작이 존재하는 영화는 관객에게 어느 정도의 '포기'를 요구한다. 그 원작의 의의를 재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깨닫게 해내려면 경우를 타워터 그려야 한다. 그저 있었다는 의무감만이 남아있는 소설 '주홍글씨'의 첫 장면은 헤스터의 옷에 달려있는 붉은 'A'자에 대한 묘사였는가.



감독 폴린조페는 원작을 재해석했다. 결국 반전으로, 주인공들을 행복할 결말로 이끌어나는 헐리웃식 원칙을 지켰다.

영화 '주홍글씨' 역시 붉은 빛으로 시작된다. 숲속을 내달리는 인디언들의 뒷발, 어느 인디언 영화화 상기는 추경의 화상, 이미 이 영화는 많은 부분 포기를 암시하고 있었다. 폴린조페 감독은 조금씩 관객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듯 보였다.

배경은 인디언과 백인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적이다. 헤스터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대륙을 찾아온 여인이지만, 남편도 없이 남편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는 예상을 감독은 지나치게 강조한다. 신대륙은 인디언 생활의 부각과 여성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 여성은 이주민들에게 인디언의 전통으로 부각되면서 개개의 대상이지만 헤스터에게는 숨겨져 있던 일정을 펼쳐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헤스터와 사랑에 쉽게 빠졌던 딘즈데일 목사가 원주민과 친화적이었던 사실을 보

면 신대륙의 여성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쯤되면 소설의 고뇌 어린 분위기를 가버린 관객들은 자포자기하게 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우연적인 만남과 서로에게 향해지는 뜨거운 눈빛, 비극적이기는 커녕 낭만적이기 짝이 없다. 신대륙은 붉은 새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두 사람의 사랑이 맺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으니 붉은새가 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낭만이 있는 유부녀와 성직자라는 현실적 제약은 오히려 둘의 사랑에 이기 때문이다.

헤스터의 입을 통해 이주민 사회의 배타성과 위선성을 폭로하며 헤스터는 그 어떤 모욕에도 굴하지 않는다. 특히 헤스터의 남편 로저의 음모로 헤스터

주변의 여인들이 마녀로 몰려갈 때 헤스터의 강인함은 절정에 달한다.

감독의 주홍글씨에 대한 재해석은 헤스터라는 인물설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곤 조선시대의 문화를 재기할 때를 영화는 마지막까지 반전을 시도한다. 소설과 달리 두 사람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결말을 내고 있다. 아니, 헐리웃 영화의 해피엔딩은 철저한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반전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의 여성이 배경이 되었다면 둘을 맺어주기 위해서 인디언들의 포기 필요했던 모양이다. 헤스터의 충실한 아내와 딘즈데일의 인디언 친구들의 희생이 두 사람의 교수행을 막아주었음에도 백인으로서 도망을 치려나. '시터 오브 조이'에서 폴린조페 감독의 황색인종에 대한 모욕적인 한 말과 자신의 사랑에 대해 담담한 태도가 문제였다. 소위 쾌심죄라거나 할까, 이주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배타적 종교관과-남성중심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감한 여인이기 때문이다.

허나운 (서양·블어 4)

□ 서평 - '섹스북'

음성적 '성' 지양하는 사회학적 해설서

과연 우리들은 성에 대해 자신있게 논할 수 있는가. 왜 성이라고 하면 음성적 언어야 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는 사항가를 비롯한 매춘업자를 공공연히 유지시키면서 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책안정 끼고 본다.

아렌트 박사는 마스 터베이션이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론이 왜 틀렸는지, 성교를 단순히 성기 삽입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성적인 장애는 왜 신체적 질환에 속하는지, 상대방을 오르기 때문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왜 쓸데없는 것인지 아주 쉽게 설명한다.



하고 개인의 불행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로마 교황령을 호되 비판하고 있다. 동성애자 문제에 있어 시각을 달리 해야 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서구사회의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일종의 우연이었다. 동성연애는 이성애처럼 모든 사회에 존재했던 자연스런 현상이며 모든 시대마다 억눌려왔던 것이 아니다. 낙태는 여성과 고유한 권리이며 도덕적인 시각이 아닌 낙태금지법안이 여성을 두 계급으로 나누고 의도적으로 나누는 이 현상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비인간적인 의료행위 사생에 내몰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책이 성립을 첫째, 어려운 의학책 용어로 쓰여지지 않고 생활 언어로 채워져 있으며 둘째, 성모양의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유도하고 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책 중간중간이 '귀찮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인생터프와 성에 대한 교양관념을 어느정도 배울 수 있다.

장세덕 (동구·유고어 2)



부끄러운 기도

지난 16일(목) 명동성당에서는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국 미사가 열렸다. 5월영령의 피 묻은 손으로 비극을 조성한 노선에 대한 하늘님의 정의로움을 심판을 기도하는 모습에 법의 정의가 무력해 진 이 시대가 감쳐 보인다.



제12회 학술상

- 모집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부문(원고800내외))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 제출처: 학생회관 2층 02대학보
- 마감일: 11월 28일
- 문의: 서울 - (02)961-4152/4183, 용인 - (0335)30-4112

제32회 문학상

- 모집분야: 시(3천이상), 소설·평론·희곡·번역 (원고 700내외)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 제출처: 학생회관 2층 02대학보
- 마감일: 11월 28일
- 문의: 서울 - (02)961-4152/4183, 용인 - (0335)30-4112

더이상 당신의 날개를 감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고 싶으저에 대해서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상속에서 스쳐지나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